

이주영 동문(행정원 09입)이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로 취임했다. 고1 때부터 법관, 국회의원 5선, 전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하는 평생 동안 도덕재무장 운동을 실천해 온 이주영 동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총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창 시절에 시작했던 한국 MRA운동의 총수가 돼 이끌어 가야 된다 생각하니, 학창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갖고 있던 도덕재무장 운동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되살리는 기분입니다.”

세계도덕재무장에 대해 동문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덕재무장을 영어로 하면 ‘Moral Re-Armament’. 그 약자가 MRA입니다. 1938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교목으로 있던 프랭크 북맨 박사가 주장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국제적인 긴장을 높이면서 군비 증강으로 재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재무장을 해야지 무기로써 재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인류의 비극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는 뜻에서 도덕재무장 운동을 주창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전은 일어났고, 세계는 참혹함을 다시 겪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 MRA는 ‘도덕재무장을 통해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북맨 박사를 중심으로 스위스 제네바 인근의 ‘코’라는 마을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를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도덕재무장이 ‘너무 올드한 느낌’이 든다,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름을 ‘Initiatives of Change(변화를 주도하는 모임)’로 병행해 부르고 있습니다.”

도덕재무장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1967년 고교 1학년 시절 저보다 한해 선배가 MRA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멋지고 좋아 보여서 같이 따라다니며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역 앞, 구 세브란스병원 자리에 있던 한국 MRA본부에서 당시 지도자 시던 정준 재현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도덕적으로 위대한



이주영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는 길은 국민 모두가 도덕적 인성을 갖는 것

인물들 생애에 대한 강연을 듣고 감동 감화를 크게 받았습니다.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의 도덕표준에 비추어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간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동문은 이듬해인 1968년 봄방학 때 MRA훈련대회에 참가해, 경기고등학교에 MRA반을 만들었다.

“지도교사 선생님을 모시는 일,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승인을 받아내는 일, 반반을 돌며 동지들을 규합하는 일, 그 결과 80여 명의 MRA 특별활동반을 만들어 발족을 성공시켰던 일, 하나하나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나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 도전정신으로, 자신감을 가질 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본부에 있던 ‘SING-OUT KOREA’의 경기고등학교 판인 ‘SING-OUT 경기’를 만들어 열심히 연습해 전교생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봉사 공연을 다니는 활동도 했습니다. 1968년 7월에는 장충체육관에 1만여 명의 MRA학생들을 모아서 ‘MRA 서울지구 고등학생 대회’를 열었는데, 제가 대회장을 맡아 대회를 조직하고 메시지를 채택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에 보내는 일도 도전정신과 자신감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회답을 보냈고, 여러 신문·방송에 보도되며, 극장에서는 대한뉴스로 상영되기도 했다고 한다.

학창 시절 단원으로 시작해 판사, 국회의원 5선을 거치는 거의 60여 년 동안 도덕재무장 운동을 하고 총재가 되셨습니다. 일평생 도덕재무장 운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신념이 있으신 걸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상을 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거짓과 불의, 부조리, 비리, 부패, 불순결, 성폭력, 이기심, 편 가르기, 증오가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도덕적 타락에 편승·동조하는 세력이 상당하고 힘자랑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의 정신을 추구하는 MRA운동이 아주 아주 절실한 시점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문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대통령도 반드시 도덕재무장이 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의원, 장관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계의 모든 지도자들도 도덕재무장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길이다. 그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어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 실현의 구심점이 되도록 만들자’ 이것이 저의 신념이자, 비전입니다.”

도덕재무장 총재로 앞으로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여섯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 국민의 도덕성 회복’, MRA운동을 통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도덕에 대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은 초, 중, 고, 대학의 학창 시절 학교교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MRA운동은 앞으로 학교교육 현장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도덕이 파탄되어 범죄자가 된 교도소, 소년원 재소자들에게도 더 헌신적으로 다가가 도덕재무장 운동의 방법을 전파해서 자신부터 인간성 변화를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MRA운동의 흡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 예술의 감동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드라마, 영화 등은 도덕재무장 운동 효과의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능 기부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SING-OUT KOREA도 부활시켜 보겠습니다.

다섯째로, MRA운동은 60여 개 나라의 네트워크가 있어 연대활동도 중요한데, 한국 MRA동지들이 청소년을 비롯해서 더 많이 다른 나라 동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한국에도 IT기술을 총동원한 세계 최고의 MRA훈련센터를 건립해 세계 MRA운동의 성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계평화 실현의 중심 국가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섯째로, 이러한 사업과 활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규합해야 합니다. 협력이사를 비롯한 MRA 협력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을 더 힘차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인생에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고교시절의 MRA활동을 통해 본래 소심하던 저의 성격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평생 저를 이끄는 지표로 저만의 독특한 3C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Change 나 자신부터의 변화>’

‘둘째 <Challenge 끊임없는 도전>’

‘셋째 <Confidence 굳건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법관과 5선의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 국회부의장 등 공직을 거치면서 늘 이 MRA정신과 3C 정신이 저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 동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세 동문들은 누구나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교훈을 새기면서 최고의 명문 사학에 다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문들 간에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모두가 우리 사회와 나라의 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모교가 더 웅비해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백진열 기자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